



장석주

시인 김기림과

한국 문단의 모던보이들

아트엔스터디

사람을 중심에 놓는
인문학의 힘을 믿습니다.

인문학 · 문화예술 교육 포털
아트앤스터디

시인 김기림과 한국 문단의 모던보이들

시인 김기림과 그를 많이 따랐던 천재 시인 이상, 그리고 소설가 박태원 등 서구적 근대성을 추구했던 1930년대 한국 문단의 '모던보이들'의 일상 및 에피소드를 추적한다.

학습 목표

- 1930년대 한국 문단의 근대성
- 김기림과 이상의 관계
- 구인회 멤버들에게 백화점이 갖는 의미
- 김기림의 성격과 생애

강사 소개

• 장석주

시인, 문학평론가

1975년 『월간문학』 신인상에 시 〈심야〉가 당선되어 등단. 저서 『느림과 비움의 미학』(2010), 『나는 문학이다』(2009) 외 다수

강의 보기



- 제목 : 시인 김기림과 한국 문단의 모던보이들
- 강사 : 장석주 (시인, 문학평론가)
- 구성 : 24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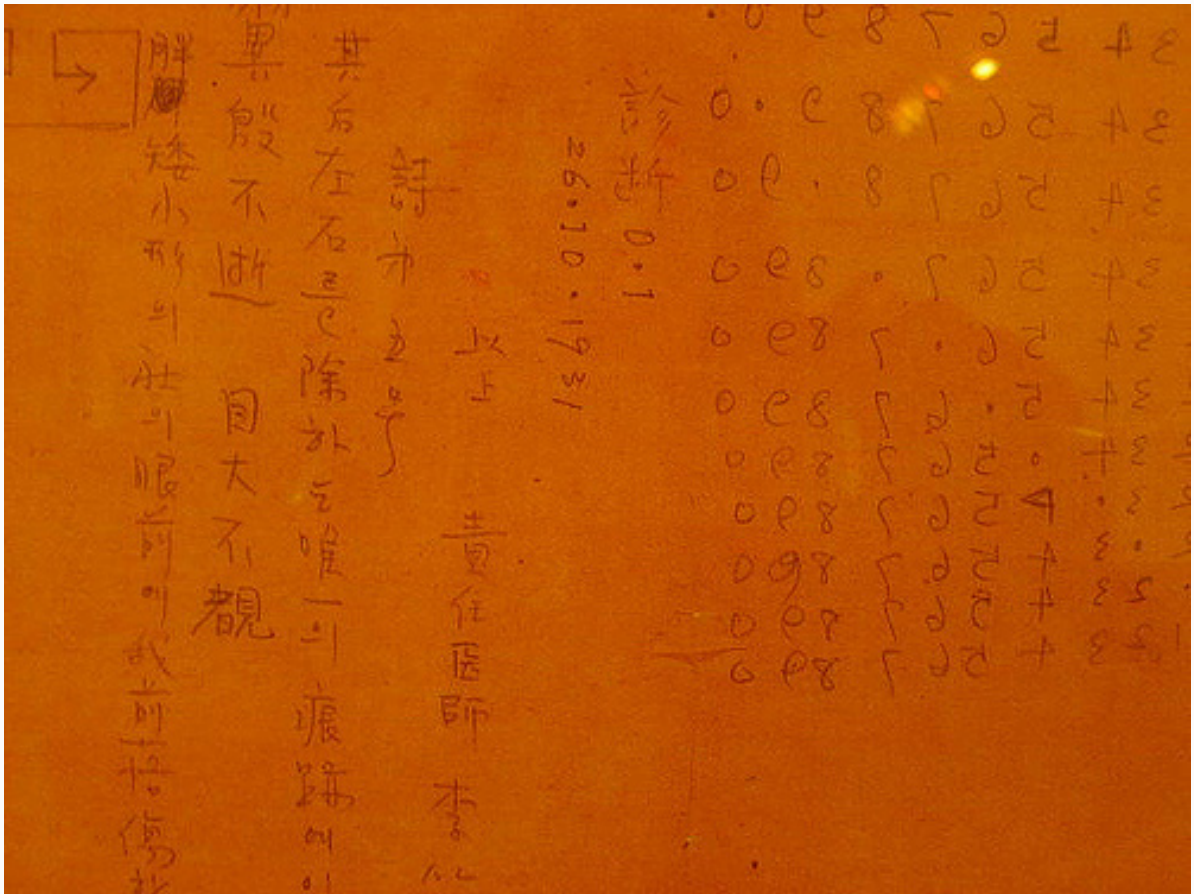
지식 노트



이상(李箱), 1910~1937)

1930년대 한국 문단을 대표하는 시인, 소설가 겸 건축가. 전통 소설 양식을 해체하고 현대인의 불안한 심리를 '의식의 흐름 기법'을 통해 천재적으로 묘사하였다. 폐병으로 26세에 요절. 그를 기리는 '이상문학상'이 1977년 제정되어 매년 수상되어 왔다. 대표작 「날개」(1936), 시 〈오감도〉(1934) 외 다수

지식 노트



〈오감도(鳥瞰圖)〉 (1934)

이상이 〈조선중앙일보〉에 연재(1934. 7/24~8/8)한 15편의 연작시. 30편으로 기획되었으나 난해시라는 독자들의 반발로 연재가 중단되었다.

지식 노트



미쓰코시 백화점 경성점

일본 최초의 백화점으로 경성에 지점을 두었다.
신세계 백화점의 효시로, 1930년대 경성 시내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다.

→ 이상의 작품 「날개」 마지막 장면에 등장

강의 노트

김기림(金起林, 1908~?) 본명 김인손

시인이자 문학평론가. 니혼 대학 문학예술과, 도후쿠 대학 영문과를 졸업한 영문학자. 조선일보 기자로 있으면서 작품을 발표. 6.25 전쟁 때 납북된 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표작 시집 『기상도』(1936), 『태양의 풍속』(1939) 외 다수

1930년대에 신문은 문학 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귀중한 공간. 즉, 신문사에서 근무한다는 것은 ‘문학 헤게모니’를 가진 위치에 있었음을 의미

헤게모니(hegemony)

이탈리아 사회주의자 안토니오 그람시가 정립한 개념으로, 한 집단이 다른 집단을 지배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이태준(1904~?)

‘한국의 모파상’이라 불리는 소설가. 조선일보 기자로 활동하면서, 이상의 시 〈오감도〉가 연재될 수 있도록 주선했다. 1946년 월북했으나, 김일성의 영웅화를 비판하다 숙청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기림은 이상의 작품을 가장 잘 이해한 든든한 지원군이었다. 이상은 김기림의 첫 시집 『기상도』(1936)의 편집, 표지 작업을 하기도 했다.

구인회(九人會)

1933년 8월 문학계 인사 9인으로 발족한 문학 친목 단체. 창립 멤버 김기림, 이태준, 정지용, 이효석 등과 추후 가입한 박태원, 이상, 김유정 등 언제나 9명을 유지. ‘순수 예술’을 추구하며 월 2~3회 모임을 가졌으나, 기관지 《시와 소설》 1회 발행에 그치는 등 활동은 소극적이었다.

구본웅(具本雄, 1906~1953)

서양화가, 조각가이자 미술평론가. 어릴적 사고로 척추 장애인이 되었다. 어두운 색채, 왜곡된 형태가 주를 이룬 야수파의 표현주의적 화풍을 선보였다.

변동림(卞東琳, 1916~2004)

프랑스 소르본 대학에서 수학한 미술평론가이자 수필가. 구본웅의 계모 변동숙의 이복 누이동생으로 이상과 결혼했으나, 그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4개월 만에 결혼 생활이 끝났다. 이후 화가 김환기와 결혼

구본웅의 소개로 창문사에 입사한 이상은 구인회의 동인지 첫 호이자 마지막 호가 된 <시와 소설> 1호를 편집한다.

‘창문사’에서 이상의 편집으로 김기림의 첫 시집 『기상도』 200부 출간

김기림에게 ‘경성’이라는 근대 대도시는 문학적 상상력의 중요한 원천이었다.

→ 도취와 파멸의 장소

1930년대 백화점은 당시 경성에 등장한 모던보이와 모던걸들이 갖고 싶어하던 물건들이 즐비한 선망의 공간이었다.

모던보이, 모던걸

일제 강점기, 자본주의의 물결 속에서 서구식 의복을 차려입고 서양의 학문과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개화된 젊은이들

→ 이들은 상징적 아버지(조선, 전통, 과거)를 죽인 존재. 전근대성을 버리고 근대성을 추구

김기림은 1908년 함경북도에서 출생

이상(1910~1937)보다 2살, 박태원(1909~1986)보다는 1살 위. 김기림은 조선일보 공채 출신의 사회부 기자. 그의 동료들은 그를 북구적인 굵은 선과 축구 감독같은 풍모, 그리고 명량한 성격의 소유자로 기억했다.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1934)

박태원(朴泰遠, 1909~1986)의 대표작. 일제 강점기를 살아가는 지식인 구보(26세의 미혼 소설가)의 무기력한 일상과 자의식을 묘사한 소설. 구보는 작가 자신의 아호이다.

박태원과 김기림은 둘 다 유희주의 성향의 구인회 멤버로서 절친했던 사이

박태원의 묘사에서 김기림은 건장한 체구의 신문사 사회부 기자였으나 조선문학 건설에 상당한 열의를 가졌던 인물임을 알 수 있다.

조선일보 공채 120명 지원에 2명 합격자 중 한 명이 김기림. 조선일보 내 그의 별명은 ‘김 모범 청년’이었다.

백석(白石, 1912~1996)

시인이자 소설가, 번역가. 본명은 백기행. 평북 사투리와 옛것을 소재로 ‘고향에 대한 상실감’을 주로 노래. 월북 후의 정보는 자세히 남아 있지 않다.

대표작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박각시 오는 저녁> 외 다수

백석은 조선일보사 직원이었지만 신문사 기자가 아니라, 《여성》이라는 잡지에서 근무했다. 대인 관계가 원만했던 김기림과 달리, 결벽증의 소유자였던 그를 사람들은 어려워했다.

아이러니하게도 백석은 토속적인 색채가 강한 시를 주로 썼음에도, 실생활에선 깔끔하고 댄디한 모더니스트였다.

김기림은 이상의 천재성을 알아보고 출간을 돕거나 문인들을 소개해주는 등 후원자를 자청했다.

→ 둘은 ‘멘토(김기림)-멘티(이상)’ 관계

이상은 일본어에 능했으나, 김기림과 함께 파리에 가고자 불어 공부에도 매진했다. 그의 시에 간혹 불어 단어들만 등장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상은 진로 문제에 대해서도 김기림에게 많이 의존하여 그에게 자주 편지를 보냈다.

“졸작 「날개」에 대한 형의 다정한 말씀 골수에 스미오.”

- 김기림에게 보낸 이상의 편지 中

르네 끌레르(1898~1981)

1930년대 프랑스 영화의 황금기를 이끈

아방가르드 영화 감독. 대표작 <파리의 지붕밑

Sous les toits de Paris>(1930), <독립기념일

Quar-toze Juillet>(1933) 외 다수

구인회 멤버들은 르네 끌레르를 좋아하면서 더욱 돈독해졌다. 경성극장에서 상영된 끌레르의 <최후의 백만장자 Le Dernier Milliardaire>를 함께 보러가기도 했다.

이상, 박태원, 김기림은 공통적으로 시, 프랑스 문학, 영화, 시 등에 큰 관심을 보였다.

→ 서구 취향

경성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던 미쓰코시 백화점은 '근대 체험의 공간'

백화점은 세계를 '시각적 대상'으로, 사람들을 '보는 존재'로 환원시킨다.

→ 물건을 사고파는 장소가 아니라 그 자체로 상품이자, 욕망의 환기 장치

백화점은 터무니없이 장대한 스펙터클의 세계이자 판타지의 공간.

즉, 백화점에 가는 것은 ‘축제에 가는 것’ 혹은 ‘사건이나 모험에 뛰어드는 것’과 같다.

봉 마르쉐

파리에 세워진 세계 최초의 백화점

김기림, “백화점은 근대의 메이크업”

백화점은 김기림과 이상의 문학 세계를 이해하는
중요 키워드

이상 문학에서 백화점이 갖는 세가지 맥락

- 물신적 시각 체험의 공간 (예: 쇼윈도에 즐비한 상품들)
- 기하학적 추상의 공간 (예: 층별 구획, 엘리베이터)
- 관찰자적 시선을 제시하는 공간 (예: 옥상에서 바라보는 시가지 전경)

이상의 시 〈운동〉(1935), 〈건축무한육면각체〉(부제: AU MAGASIN DE NOUVEAUTES)(1932)에는 ‘백화점에서의 공간 체험’이 잘 드러나 있다. 이는 김기림의 작품도 마찬가지

김기림은 조선일보가 폐간(1937년 11월)되자 함경북도도 귀향하여 경성고보에서 영어 교사로 근무한다.

이 시절 그의 제자가 60년대 한국영화의 대표적인 감독 신상옥(1926~2006)과 시인 김규동(1925~2011)

이후 김기림은 남한에 내려와 있었지만 6.25가 발발하자 납북된다. 안타깝게도 우리에게 그의 작품이 전해질 수 있는 기회는 전쟁으로 인해 끊기고 말았다.

학습 요약

- 1930년대에는 서구적 근대성을 추구하던 ‘모던보이’들이 구인회를 중심으로 한국 문단의 전면에 등장했다.
- 신문사 사회부 기자로 조선문학 건설에 열정을 지니고 있던 시인 김기림은 이상의 천재성을 알아보고 그의 멘토 역할을 자청했다.
- 1930년대 경성의 미쓰코시 백화점은 근대 체험의 공간이었다.
- 백화점은 1930년대 한국 문단의 모더니스트 김기림과 이상의 작품을 이해하는 중요 키워드이다.

인문 퀴즈

1. 그는 일제 강점기 한국 모더니즘 문학을 대표하는 시인이다. 그는 시의 형식과 회화성을 강조하는 모더니즘 문학을 토대로 한국 문학의 이론적 진보를 이끈 것으로 평가된다. 『기상도』, 『오전의 시론』 등 시의 주지주의적 태도와 이를 뒷받침하는 많은 시론을 발표하여 ‘모더니즘의 대부’로 평가되는 그는 누구인가?

- (1) 박목월 (2) 김영랑 (3) 임화 (4) 김기림

인문 퀴즈

3. 김기림(金起林, 1908~?)은 일제 강점기 모더니즘을 대표하는 시인이자 문학평론가이다. 도후쿠 대학 영문과를 졸업한 그는 주지주의, 이미지즘 등 시의 감상성에서 탈피한 근대적 시론을 자신의 문학에 도입하여 많은 시 창작물을 발표, 모더니즘 문학의 진보에 크게 기여한 작가이다. 다음 중 김기림의 문학적 태도와 행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내용은?

- (1) 그는 시의 음악성 보다는 회화성에 주목하여 시의 무기적, 기하학적 회화성이야말로 현대의 혼란상을 표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 (2) 그는 현대 문명의 발달에 따라 문학도 새로운 양식이 실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그 기본 태도는 주지주의였다.
- (3) 그의 형식주의, 기교주의는 프로 문학 진영의 작가들에게 큰 지지를 얻었다.
- (4) 그는 작품의 내용과 작품의 형식을 모두 중요시하는 '전체시론' 이라는 변형된 모더니즘 이론을 정립한다.

인문 퀴즈

1. (4) 2.(2) 3.(3)

3. (3) 프롤레타리아 문학의 줄임말인 프로 문학 작가들은 김기림이 작품의 내용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무시하고 있으며, 표피적 기교주의에 함몰된 이론가라고 비판했다.

이미지 출처

강의 보기

- 퍼블릭 도메인

지식 노트

- 퍼블릭 도메인
- [자본 at ko.wikipedia.org](#)
- 퍼블릭 도메인

시인 김기림과 한국 문단의 모던보이들

강사 : 장석주

발행 : (주)아트앤스터디

Tel: 02-323-1081

Fax: 02-323-1082

메일: biz@artnstudy.com

전자출판물 인증번호: ECN-0199-2013-810-001780052

본 강의의 저작권은 (주)아트앤스터디에 있습니다.



아트앤스터디